LTE보다 3배 빠른 LTE-A 시대가 왔다

이번 주말 서비스 개시…4배 빠른 3밴드 출시도 눈앞

이용자는 체감 못하고 단말기 교체·가격 인상 지적도

이동통신사의 속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가 등장한 지 불과 3년만에 '3배 빠른 LTE' 시대가 시작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더 빠른 속도를 원하는 이용자 수요에 맞춰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인 결과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세계 최초로 '광대역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트'(광대역 LTE-A)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도 이번 주말을 전후로 광대역 LTE-A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입장이어서 광대역 LTE-A가 조만간 이통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통사들은 이미 이러한 수요 증대를 예측해 광대역 LTE-A와 함께 부가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SK텔레콤은 서비스 출시와 함께 최대 4명이 동시에 다각도에서 촬영한 고화질 동영상 파일을 클라우드 서버에서 하나의 영상으로 편집하고 스마트폰으로 공유할 수 있는 '앵글스'(Angles)를 출시했다.

LG유플러스도 클라우드 서비스인 'U+Box', 멀티태스킹과 공유에 특화한 'U+Share Live' 등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3년 만에 광대역 LTE-A 출시=시장 확대 예상=광대역 LTE-A는 1.8㎓ 대역 20㎒ 폭 광대역 LTE 주파수에 일반 주파수인 800㎒ 대역 10㎒ 폭을 묶어 주파수 폭을 넓히는 '주파수묶음기술'(Carrier Aggregation·CA)을 이용해 최고 225Mbps 속도를 구현한 기술이다. 국내서 LTE 서비스가 처음 상용화된 것은 2011년 7월. 불과 3년만에 3배 빠른 광대역 LTE-A까지 진화한 것이다.

광대역 LTE-A는 최고속도 기준으로 기존 LTE(75Mbps)보다 3배, 3G(14.4Mbps)보다 15배 빠르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의 이동통신 이용 패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올 연말께 4배 빠른 '3밴드 광대역 LTE-A' 상용화=이통사들의 속도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미 광대역 LTE-A보다 앞선 기술 시연에 성공하고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

이통사들은 연말께 광대역 LTE-A에 또 다른 대역의 주파수 10㎒ 폭을 묶어 전송속도를 300Mbps까지 높인 '3밴드 광대역 LTE-A'를 출시할 예정이다. 소위 '4배 빠른 LTE' 상용화도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20㎒ 폭 주파수 5개를 연결해 최대속도 750Mbps까지 구현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20MHz짜리 주파수 3개를 묶어 450Mbps까지 속도를 내는 기술을 시연한 바 있다.

그러나 일반 이용자들은 이러한 속도 차이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통사들의 기술 경쟁으로 신규 단말 출시가 이어지면서 단말기 교체와 가격 인상만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최고속도가 225Mbps라고 하나 실제 평균속도는 70~80Mbps 수준이고, 올해 말 3밴드 LTE-A가 나오면 또 새로운 단말을 사야한다"고 꼬집었다. /임동률기자 exian@·연합뉴스

LTE 가입은 늘었지만 여전히 와이파이가 '최고'

캐나다 '모비디아' 10개국 조사

와이파이 사용량 LTE 3배

통신 속도가 빠른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들도 실제로는 LTE 등 이동통신망보다 와이파이(Wi-Fi, 무선랜)를 더 많이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의 모바일 데이터 전문회사 모비디아는 지난 1~4월 한국과 미국 등 10개국 LTE 가입자들이 어떤 통신망으로 데이터를 더 많이 사용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와이파이를 이용한 통신이 전체의 75~90%를 차지했다고 23일(현지시각) 밝혔다.

이는 통신 속도가 빠른 4세대(4G) LTE 시대가 되면 와이파이보다 LTE 사용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업계의 예측이나 통념과는 반대되는 결과다.

특히 같은 조사에서 4G 가입자의 이동통신 데이터 사용량이 3세대(3G) 가입자의 갑절 가까이 될 정도로 많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늘면서 와이파이 사용도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LTE 시대에도 여전히 LTE가 아닌 와이파이가 일종의 기간 통신망 역할을 하는 셈이다.

조사대상국 중 월간 LTE 사용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 3GB 안팎이었고, 근소한 차이로 한국이 두 번째로 많은 LTE 사용량을 보였다. 특히 한국은 LTE와 와이파이를 합한 데이터 사용량이 12GB로 가장 많았다. LTE 사용량은 3GB 안팎, 와이파이 사용량은 9GB가량으로 와이파이 사용량이 LTE 사용량의 3배였다.

모비디아의 앞선 조사와 견줘보면 한국 LTE 가입자의 월 평균 LTE 데이터 사용량은 지난해 1월 2GB에서 12월 2.5GB로 늘어난 데 이어 올 초 3GB 안팎으로 더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와이파이 사용량도 지난해 1월 5GB에서 12월 10GB로 늘어나는 등 전체적인 데이터 소비량이 크게 늘면서 오히려 LTE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게 됐다.

전반적인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난 것은 LTE 시대에 접어들면서 풀HD(FHD) 등 고화질 콘텐츠의 보급이 일반화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보조금 상한선, 통신사 "낮추자" 제조사 "올리자" 첨예한 대립

10월 단통법 시행 앞두고 토론

'경영 악화' vs '유통비 전가'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 재조정이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이동통신 3사와 제조사, 유통사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 조정 관련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했다.

2010년 이래 4년째 27만원으로 묶여 있는 보조금 상한선이 최근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선 것은 단통법이 시행령 아래 고시에서 상한선을 명시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 안팎에서는 보조금 상한선이 변화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재조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방통위가 27만원의 보조금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시기는 고가의 스마트폰이 시장에 자리잡기 전이다.

보조금 상한선과 관련해 이통 3사는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펴고 있다.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규모를 매장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모든 소비자에게 일괄적으로 똑같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조금 상한선이 올라가면 경영상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휴대전화 제조사는 보조금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보조금 상한선을 내리자는 이통사의 주장은 결국 휴대전화 유통 관련 비용을 제조사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는 반발도 있다. /연합뉴스

금주의 추천 앱

앱으로 아나바다 운동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에어비엔비와 집카의 성공에 힘입어 국내에도 이를 기반으로 한 앱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 오늘은 공유를 주제로 한 앱을 소개한다.

미리내

◆미리내
제작 : GoodWave Inc.
사용기반 : 안드로이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값을 미리 지불하는 미리내 가게가 앱으로 출시됐다. 미리내 운동에 참여하는 가게들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후원을 할 수 있다. 특히 영상시청만으로 포인트가 적립되고, 이를 후원에 활용할 수 있다.

SOCAR

◆SOCAR
제작 : 스마트 카셰어링 쏘카
사용기반 : 안드로이드, 아이폰
SOCAR는 대표적인 카셰어링 서비스이다. 렌터카와는 달리 연회원제로 운영되고 주택가 근처에 보관소가 있다. SOCAR는 앱을 통해서 원하는 시간(10분 단위)만큼 차량을 예약할 수 있으며 차종과 위치를 선택할 수 있다

집밥

◆집밥
제작 : Zipbob
사용기반 : 안드로이드
집밥은 소셜다이닝 플랫폼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즉석 밥 모임을 도와주는 앱이다. 혼자 밥먹기가 심심하고 외롭거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식사 모임을 하고 싶은 사람 등 다양한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제공:디자인주스
(대표 정우주 tiger@designzoos.com)